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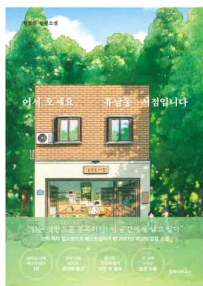
슬기샘 인기 도서

9월의 인기 도서는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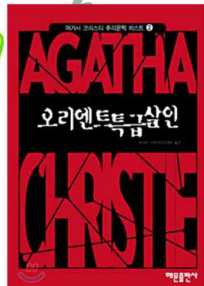
우리가 만난 시간

이은영 지음



어서오세요,
유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지음



오리엔트
특급살인

애거서 크리스티 지음

9월의 다독왕

1학년

이현경

오수아

2학년

전소빈

신예진

3학년

윤채현

한유림

9월의 다독왕으로 뽑힌 학생들 축하합니다.

12월에 학기말 다독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슬기샘 소식

1. 슬기샘 소식지는 매달 첫째 주에 발행됩니다.
2. 2학기 신간도서가 도착했습니다.
3. '한 줄 서평'을 도서관에서 받습니다.
소식지에 서평이 실리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손 안에 책 한권'과 '독서퀴즈'에 참여해 보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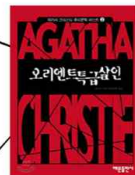
한 줄 서평

오리엔트 특급살인 애거서 크리스티 지음



나오는 인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추리할 때 드러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추리하
는 것이 재미있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
이라 이해가 더 잘 되었다.
사서 읽고 싶은 정도로 재미있다.

1학년 오수아, 별점: ★★★★★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지음



친한 친구의 죽음과 관련하여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지주연.
지주연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다.
특히 관련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

1학년 최연우, 별점: ★★★★★



한 줄 서평에 글이 실린 친구들은 슬기샘으로 오세요.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

지난호 <독서퀴즈> 정답 및 당첨자 발표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독서퀴즈 정답>

1. 주인공 '석균'이 1년 동안이나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된
이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 충격으로**
2. 석균의 생명을 구해준 동네 할머니의 은퇴 전 직업은
무엇일까요? **간호사**
3. 할머니가 이사 오던 첫 날, 석균이와 할머니가 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화분 위치 때문에**

<당첨자 발표>

1104 김정은 1109 우이림

2210 오은채 3203 김지우

당첨된 친구들 축하합니다. :) 당첨자는 슬기샘에서 선물을 받아가세요.

슬기샘 소식지의 독서퀴즈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매월 4명의 학생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절취선

학번: _____ 이름: _____

독서퀴즈를 풀어서 도서실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증정합니다.

「어린왕자」 독서퀴즈

1. 주인공 '나'가 화가의 꿈을 접게 된 이유는 ?
2. 주인공 '나'가 어린왕자를 만나게 된 장소는 어디였을까?
3. 주인공 '나'가 어렸을 때 그렸던 '코끼리를 삼킨 뱀'의
그림을 그려주세요.(책 속 그림을 그려도 좋고, 상상해서
그려도 좋아요!)

2022년 10월 :) 이달의 책

어린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1943년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전 세계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생텍쥐페리는 청소년기에 제1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투비행사로 복무했고, 1944년 그르노블-안시 지역으로 경찰임무를 맡고 출격했으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린왕자>, <남방우편기>, <야간 비행> 등의 작품을 남긴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를 겸한 작가였습니다. 소설 <어린왕자>는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떨어지게 되던 날, 어린왕자를 만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월 이달의 책 소개'에는 어린왕자의 시작 부분을 그대로 담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뒷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은 도서관에 와서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01

여섯 살 적에 나는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하는, 원시림에 관한 어떤 책에서 멋들어진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맹수를 꿀꺽 잡아삼키는 보아구렁이가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걸 옮겨 그려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러고는 더이상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여섯 달 동안 잠만 자며 먹이를 소화시킨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에서의 온갖 모험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도 색연필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전 처음 그려보는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었다. 내 그림 제 1호였다. 그 그림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그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내 그림이 무서우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삼키고서 소화시키는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뱃속을 그려넣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나더러 속이 보이지 안 보이건 간에 보아구렁이 그림 따위는 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해주었다.

이리하여 나는 여섯살 때 화가로서의 멋진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낙담하고 만 것이었다.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린이들로서는 그들에게 매번 설명을 하고 또 해야 하니 피곤한 노릇이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리공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책 보기만 해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경우에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살아오는 동안 여러 믿음직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착을 갖게 되었다. 어른들 가운데 섞여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썩 좋은 쪽으로 변한 건 아니다.

어른들 중에 좀 똑똑해 보이는 이들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던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보곤 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이 무언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으레 "모자구나"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구렁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하게 되었다. 브리짓 게임이니 골프니 정치니 벡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을 알게 된 것을 몹시 흐뭇하게 여겼다.

02

그래서 나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도 없이 홀로 지내왔는데, 육 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문득 비행기 고장을 만나게 되었다. 비행기 엔진의 어딘가가 파손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였으므로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손수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마실 물이 일주일분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자보다도 훨씬 더 고립된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어떤 기이한 목소리에 잠이 깬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기…… 나 양 한마리만 그려줘."

"응?"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후닥닥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아주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아이가 나를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 있는 그림은 훗날 내가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이다. 그러나 물론 나의 그림은 모델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렇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다. 여섯 살 적에 이미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꿈을 접어버린 후 나는 뱃속이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하는 보아구렁이 외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본 일이 없었으니 말이다.

난데없이 나타난 그 아이를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에 홀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해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무서워서 죽겠다는 표정도 아니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사막 한 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 같은 구석은 조금도 없었다. 이윽고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말했다.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대한 일이나 한 것처럼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부탁이야, 나 양 한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거역할 생각을 못 하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너무나도 영동하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결국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곧 내가 배운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분이 나빠진 목소리로)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내가 그럴 줄 아는 단 두 가지 그림 중의 하나를 그려주었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의 그림 말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냐, 아냐! 보아구렁이 뱃속의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너무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거든. 난 양을 갖고 싶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양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어버렸을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 참……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갖고 싶어."

엔진을 분해하는 일이 급하기에 나는 아무렇게나 다음과 같은 그림을 끼적거리려고는 그에게 한마디를 툭 던져보았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이 양한테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풀은 넉넉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데 뭐…… 이런! 잠이 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